

10/20/19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3 장 24-37 절

- (막 13:24)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 (막 13: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절관주** 계 6:13
- (막 13: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절관주** 마 16:27
- (막 13:27)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막 13: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 (막 13: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절관주** 단 11:33
- (막 13: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 (막 13: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막 13: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 (막 13: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절관주** 행 1:7
- (막 13: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 (막 13: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 (막 13: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 (막 13: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본문 바로 전, 예수님은 대환란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는 날이 오면 대환란이 시작이 된 것임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기도하고 깨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환란은 말 그대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여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환란 끝에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믿지 않아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활활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날은 지옥으로 가는 날입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고 그래서 아는 것도 틀리는 실수를 한다고 푸념하는 소리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실수'라는 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 여년간 학원을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공부 잘하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주변이 시끄러워 집중을 못해서 시험을 잘못 보았다고 변명을 늘어 놓는 학생들 거의 모두는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두려웠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몸도 아프고 주변 환경에도 민감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과를 주변 환경적인 요인으로 돌려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부 잘하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즐깁니다.

시험 날이 오면 그들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납니다.

그들에게 있어 시험은 자신들이 잘났음을 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자신감이 있어 시험을 잘 보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준비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려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 날은 아주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본문은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 세상 종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끝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막 13:24)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막 13: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막 13: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는 다릅니다.

초림에는 초라하게 고난받는 종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에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에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재림에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재림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그 날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자연계의 대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본 절은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체의 대혼란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 24:23)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요한 계시록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일이 여섯째 인을 뿜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계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계 6: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계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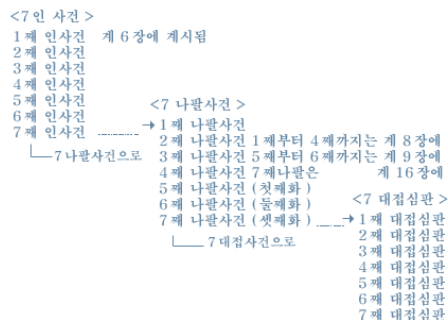
(계 6: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 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간략하게 총 정리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난에 대해 순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환난 동안 있을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관한 순서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관한 도표).

여섯째 인 사건 후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새로운 사건 곧 7 나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일곱번째 나팔과 함께 새로운 사건 곧 7 대접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7 대접 사건을 끝으로 모든 종말적 환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의 계시는 6 인으로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주님은 천사를 시켜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막 13:27)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단지 심판을 위함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주십니다.

(막 13: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막 13: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막 13: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막 13: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전쟁 지진 기근 등의 자연 재해, 세계 만국까지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된 줄로 알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여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인류의 종말의 날로 보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실제로 멸망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2000 년 동안 나라없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1948 년 5 월 14 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 년만에 다시 세워진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리’에서 ‘이 세대’란 한 세대를 가리키는 30 년이나 40 년, 혹은 100 년으로 보기 보다는 ‘이 세상’ 혹은 이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30 년 40 년 혹은 100 년 후로 보면 그 날과 그 때에 대하여 역산이 가능하게 되어 예수님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심으로써 이 종말적인 사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막 13: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막 13: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날과 그 때를 계산해내 알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하고 깨어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막 13: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막 13: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타국으로 간 주인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 종들은 성도들, 주신 권한은 복음 전파의 권한, 각각 사무를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니 그 날까지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깨어 있을 것을 강권하십니다.

(막 13: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막 13: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홀연히 온다는 말은 예상치 않게 급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의하고 깨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홀연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 주의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홀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깨어 있으라'라고 강권하시며 이 말은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여도 그들의 말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 날과 그 시는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작금의 세상에 비추어 보아 그 날과 그 때가 얼마나 가까왔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열 처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혼인 잔치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기름이 떨어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기억하며 항상 준비된 자로 이 세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 준비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천국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